

序文

晉山之姜吾宗也自 鼻祖元帥公以後代有冠冕名公鉅卿赫赫繼武爲東國大姓者千有餘祀支分派別兄弟之子爲堂從堂從之子若孫爲再從三從而後屬浸疏終歸於路人然顧其初則一也何忍昧昧不知其今之雲仍爲昔某公之支派而視之若路人哉嗚呼此譜之所以不可不作而其有關於追遠而惇叙者非淺鮮也宗人姜都事碩老甫專精致力考出系次第編成一譜刊錄其子孫而宅相以下不與焉以同宗爲重故也其追遠之誠惇叙之誼實在於斯譜而爲吾宗之一大幸也蘇老泉族譜引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

生矣余亦曰觀斯譜者亦足以感發其善端而無復有路人視之歎也况當衰  
替不振之日苟能因斯譜而上念祖先之遺烈而務自奮起焉下勵子孫之  
類習而期以立揚焉芝蘭玉樹之寶滿於謝氏之庭高車駟馬之慶溢於于公  
之門使之轉今而回昔則抑可見斯譜之有助而尤不爲幸中之幸歟噫老者  
勸之少者勉之則茲亦不難致也明矣諸君以余齒最長強請爲之弁辭不  
獲於是乎書

歲丁未清和之閏下浣不肖後孫通政大夫丞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

春秋館修撰官後孫瑜謹序

## 서문

진산강씨는 우리 종족이다. 시조 원수공으로부터 대대로 지체높은 벼슬이 많아 이를만 재상과 귀인이 슬기롭게 이어받아 우리나라 대성을 이루한지 일천년이 넘었다. 후손이 여러갈래로 나뉘어서 형제의 아들이 사촌이 되고 사촌의 아들과 손자가 재종과 삼종이 되어 그뒤 이전이 차츰 멀어져서 마침내 걸가는 사람처럼 보게되니 그 선대를 생각해보면 한 근본이었는데 어찌 참아 어리석게도 지금의 후손이 옛날 어느 어루의 분파인지 알지 못하고 길가는 사람처럼 볼수 있겠는가. 오, 애달픈 일이로다. 이때문에 족보를 아니 할수 없으니 이것이 선조를 생각하고 종족을 화목하게 하는데에 관계됨이 적지않은것이다. 일가 사람 강도사 석노께서 정성 올 다하고 힘을 이루어 세계의 차례를 상고하여서 한 족보를 엮어 꾸미면서 자손만을 색이고 외손 이하는 끼우지 아니하였음은 종족을 송충히 여긴 까닭이었으니 선종을 사모하고 종족의 화목한 정이 실로 이 족보에 실렸으니 우리 종종의 큰다행이었다. 소노천 족보글에 말하기를 우리 족보를 보는 이는 호도스럽고 공손스러운 마음이 절로 날것이라 하였다. 내 또한 말하노니 이 족보를 보는 이는

착한 마음이 흐느껴서 다신는 길가는 사람처럼 대함이 없어야 하겠거늘 하물며  
쇠퇴하여가는 오는날을 당하여 진실로 이 족보로 말미암아 위로 조상님들이 끼치  
신 충렬을 사모하여 떨치고 이 러날것을 생각하고 아래로 자손들의 퇴폐한 풍습을  
깨우쳐 기어히 이름을 세상에 높이 드내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다 자손의 착한 보배  
는 사씨의 뜰에 가득하였고 부커의 경사는 우공의 삼문에 가득하였으니 우리 또  
한 온 종족으로 하여금 오늘날을 전화하여 옛날을 회복 하다면 이 족보의 도움을  
여기서 볼수 있을 것이니 더욱이 다행한 가운데서 다행이 아니겠는가 오! 늙은  
이는 권하고 젊은이는 힘쓴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 분명하다.

제군이 내가 나이 가장 많다하여 굳이 서문을 청하기로 사양하다 마지못하여  
이에 쓰노라.

세정미 청화지운 하완 불초 후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유퓨 삼가 서함

晉州姜氏重修直系家譜

始祖以式後孫

諱啓庸

一  
世

文科國子博士  
高麗元宗甲戌  
以通信使書狀  
官赴日本還封  
晉山府院君掛  
冠不仕見遺事

子引文

二世

事文  
科殿中內給  
事博士公之入  
日本也公隨行  
備經艱險忠烈  
王辛已以公會  
知道里又舉爲  
通信書狀官還  
不復仕戒子孫  
勿業地勝覽  
事載

子師瞻

三  
也

由吏進忠烈  
王朝監察御史  
墓慶尚道草溪  
郡甲山里無表  
誌可考後孫設  
壇祭之有壇碑  
十七世孫應教  
世白撰碑文舊  
譜云判內議令  
參理副使

子昌富

世

由吏進判圖正  
郎忠穆王丙戌  
以鷄林判官移  
大匡門下侍中贈重  
晋原府院君  
永嘉郡夫人權  
允保祖檢校將  
軍金紫光祿大  
子夫尚書左僕射  
守左僕射曾祖上  
昌富坐洪墓甲山  
子孫各譜有墳壙  
將軍伯先尚書射

子君寶

五世

忠肅王甲子南宮敏榜登第政  
堂文學藝文館大提學三重大  
匡門下左侍中鳳山君謚文敬  
公洪武庚申別世墓星州嘉利  
縣代寺前御谷里丙坐有挽詞  
牧隱李穡陽村權近見遺事  
配鷄林郡夫人金氏父戶部尚書  
麗珍祖太子詹事天錫曾祖殷  
公洪武壬申卒墓京畿臨江縣

子著見

六世